

2025년 9월

15호

CHA PHARM IN

약대생이 쓰는 약대 이야기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편집부의 말

김미행 : 차팜인 빠땡

신선 : 첫 차팜인이 9호였는데, 벌써 15호라니 감회가 새롭네요ㅎㅎ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부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호차도 잘 부탁드립니다♡

손윤서 : 이번 학기도 화이팅! 재밌게 읽어주세요.)

김동현 : 항상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당 :)

오승범 : 차팜인에 기사 쓰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_^

이가영 : 화이팅

오채현 : 이번 학기도 다들 화이팅 🍊 차팜인도 재밌게 읽어주세요!

손정호 : 차팜인에 들어오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배예진 : 차팜인 15호도 재밌게 읽어주세요~! 이번 학기도 화이팅)

조혜림 : 차팜인 최고입니다

이채원 :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우린 :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차팜인 많이 읽어주세요!! 개강 화이팅..!

권서우 : 차약이들 이야기~ 재밌게 읽어주세요 😊

김주영 : 첫 차팜인 편집이었는데 편집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읽는 분들 에게도 그만큼 재미있는 15호가 되길 바라요!

이창윤 : 모두 파이팅

장준원 : 2학기도 화이팅

정희찬 : 차팜인 파이팅, 차약 파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김민지 : 기사 쓰는 데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차팜인 15호 재밌게 읽어주세요 :) 이번 학기는 웃는 날만 가득하길 바라요.

김민수 : 차팜인 재밌게 읽어주세요! 2학기도 화이팅!

유수정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도교수

양영덕 ntsky0816@cha.ac.kr

편집장

김미행 (약학과 21), chapharmin@naver.com

편집팀

신 선 (약학과 22), 김미행 (약학과 21), 조혜림 (약학과 22), 이채원 (약학과 22), 손윤서 (약학과 23), 한우린 (약학과 24), 김주영 (약학과 22), 김민수 (약학과 23)

취재팀

김동현 (약학과 22), 오승범 (약학과 21), 이가영 (약학과 21), 오채현 (약학과 23), 손정호 (약학과 19), 배예진 (약학과 21), 권서우 (약학과 22), 이창윤 (약학과 22), 장준원 (약학과 22), 정희찬 (약학과 22), 김민지 (약학과 23), 유수정 (약학과 25)

발행회차(펴낸 곳)

2025년 15호(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교지편집부)

01

목차 / 편집부의 말

02

총 MT

03

체육대회

04

차약이 친해지기 프로젝트

05

책략

06

6학년의 생생한 병원 실습 후기

07

약사 국가시험 CBT 도입

08

2025년도 국시 후기

09

병원 약사 졸업생 카톡 인터뷰

10

약대생이라면 알아야 할 두 단체

11

APPS 2025 참가 후기

12

38번의 일기

13

차약 앙케이트

2025 차약 총MT

행사기간 2025년 3월 21일(금) ~ 3월 22일(토)

지난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간,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재학생들이 경기도 양주에 있는 딱따구리 수련원으로 2025학년도 총 MT를 다녀왔다.

이번 MT는 약학과 15대 학생회 ‘차온(溫)’이 준비했으며, ▲조별 아이스 브레이킹 ▲방돌이 게임 ▲단체 레크리에이션 ▲조별 친목 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총 MT 출발알~!

3월 21일 오후 1시, 버스 출발과 함께 총 MT의 일정이 시작됐다.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단체 사진을 찍은 뒤, 조별 아이스 브레이킹과 방돌이 게임을 진행했다.



사진설명 방돌이 게임 중 하나인 ‘핫 앤 콜드’를 즐기는 박찬형 학우(25)의 모습

‘차온(溫)’의 기획국원인 김민수 학우(23)는 “주요 역할은 방돌이 게임과 레크리에이션 등 학우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게임의 구성부터 소품 제작, 진행 순서 조율까지 다양한 부분에 차온 기획국원들과 함께 관여하며 총 MT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SNS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핫 앤 콜드’ 게임은 학우들이 웃으며 즐긴 인기 코너였다. 이에 대해 김민수 학우는 “핫 앤 콜드 게임은 외국 SNS에서 처음 접하고 너무 재미있어 보여 직접 도입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흥미롭고 유쾌한 시간이었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밝혔다.

학우들 사이에서는 기대 이상의 반응이 쏟아졌다. “게임이 끝난 후 많은 학우가 ‘정말 재미있었다’, ‘이런 게임은 처음 해봤다’, ‘웃느라 눈물 났다’고 말했었어요. 뒤풀이 자리에서도 기억에 남는 게임이었다고 언급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라며, 준비자로서의 뿌듯함을 드러냈다.

🔊 “삼겹살 좀 더 주세요!”

오후 5시, 고기 냄새로 가득한 바비큐 파티가 시작됐다. 이다운 학우(25)가 “삼겹살 좀 더 주세요!”라고 외칠 정도로 맛있는 고기는 금세 동이 났다. 고기 굽는 냄새와 함께, 어색했던 분위기도 천천히 풀렸다.



사진 설명 조별 레크리에이션 중 건배사 발표 장면

식사 후에는 단체 레크리에이션과 장기자랑이 이어졌다. 조별로 게임에 참여하고, 건배사를 발표했다. 각 조의 센스 넘치는 건배사에 분위기가 살아났고, 누군가는 “건배사만 봐도 조 분위기가 느껴졌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 설명 레크리에이션을 지켜보며 미소 짓는 교수님들의 모습

이어진 장기자랑 시간에는 춤, 노래, 성대모사 등 개성 넘치는 무대가 펼쳐졌고, 참가자들의 열정에 교수님들도 미소와 박수로 화답했다. 조별 시상식까지 진행되며 승패를 떠나, 학년을 막론하고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유대감을 쌓는 시간이 되었다.

🔊 딸기, 당근, 수박, ‘바나나’ 게임...?

밤 9시 이후에는 조별 친목 시간이 진행되었다. 술게임이 한창이던 밤, 임채민 교수님께서도 ‘딸기, 당근, 수박, 바나나’를 외치며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 교수님이 잠시 머뭇거리시자, 조승빈 학우(25)가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 흐름을 살렸다. 그 결과, 교수님은 무사히(?) 게임에 적응했고, 전국에서 가장 술게임을 잘하는 교수님으로 등극하셨다.



사진 설명 조별 친목 시간, 술게임을 즐기며 웃고있는 학우들

🔊 깔끔한 마무리, 빛나는 시작

둘째 날 아침, 정리를 마친 학우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9시 40분경 버스에 올라 학교로 향했다.

이번 총 MT는 ‘차온(溫)’의 세심한 준비, 교수님의 따뜻한 참여, 그리고 학우들의 열띤 호응 덕분에 아무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선후배가 함께한 이번 총 MT는 새 학기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다.

햇볕보다 더 뜨거웠던 우리

- 2025년 1학기 체육대회를 돌아보며



장준원 기자



5월, 봄기운이 완연하던 캠퍼스에 어느새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다가오는 시험 때문일까? 아니다. [적어도 나만큼은]

5월 7일부터 22일까지 펼쳐진 '해솔림픽', 차의과학대학교의 1학기 체육대회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속과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약학과가 있었다.

땀과 응원, 그리고 함께 뒀 발걸음

올해 체육대회는 그야말로 종합 스포츠 페스티벌이었다. 협동게임으로는 판 뒤집기, 태풍의 눈, 전략 줄다리기, 복불복 달리기 등이 있었고, 구기 종목으로는 남자 축구와 농구, 여자 피구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약학과는 이 모든 종목에 빠짐없이 참여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이야기와 추억들이 쌓였다.

나는 축구 동아리 '공차' 소속으로, 약학과 대표 축구팀의 일원으로 출전했다. 2022년에 축구 예선전에서 바로 떨어졌던 기억이 있지만 작년에는 무려 준우승까지 했다고 전해 들었었기에 올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였다. [범인 발견?]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던 운동장 위에서 볼을 차며, 무수히 많은 응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다. 예선전에서 좋은 흐름을 타던 우리는 준결승까지 진출했지만, 데이터경영학과에 2대1 역전패를 당하며 결승의 문턱에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하지만 곧이어 치른 시학과와의 3·4위전에서는 재정비된 팀워크로 승리하며 당당히 3위의 자리에 올랐다.

경기의 결과도 기뻐지만, 더 감동적인 건 그 과정이었다. 함께 작전을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공을 주고받던 순간들. 실수가 있어도 서로를 탓하지 않고, 웃으며 다음을 준비하던 그 모습 속에서, 약학과의 진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약학과 vs 미용1&3반

6:1 약학과 승



약학 VS AI

2:1 약학 승리



농구장에세도, 약학과는 빛났다

농구팀 역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예선전에서는 미래융합팀을 상대로 멋진 플레이를 이어가며 승리했고, 준결승에서는 다시 한 번 데이터경영학과라는 벽에 막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바이오공학과와의 3·4위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승리, 결국 농구 또한 3위로 마무리 지었다. 경기장에 울려 퍼졌던 3점 슛의 환호성, 선수들의 기합, 응원단의 응원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함께'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보여준 응원

체육대회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선수들만이 아닌, 경기장을 가득 메운 응원단 또한 분명한 주인공이었다. 경기장을 뛰지 않더라도, 약학과는 언제나 가장 뜨거운 응원의 진원지였다. 목이 쉬도록 외치는 이름과 파이팅, 그리고 숨은 노력들 속에서 약학과라는 공동체의 힘이 느껴졌다.

사실 응원을 받는 것은 조금 부끄러울지도 모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함성은 경기장에 나간 선수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았다. 나 역시 경기 도중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그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그건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실은 에너지였다.

신입생도, 선배도, 모두가 하나로

올해 해솔림픽은 특별히 더 의미가 깊었다. 고학번 선배들은 몇 번의 체육대회를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를 이끌고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신입생들은 처음 접하는 대회를 통해 동기, 선배들과 가까워지고, 학교생활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누군가는 처음 만난 친구와 줄다리기에서 같은 줄을 잡았고, 누군가는 이름도 모르던 선배와 함께 응원을 외쳤다. 이 모든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친목과 단합의 매듭이 되어갔다. 운동장은 단지 경기장이 아니라, 세대와 마음이 연결되는 공간이었다.

여름보다 더 뜨거웠던 5월,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이번 체육대회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다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 모든 과정은, 결과보다 더 값졌다. 우리는 이 5월, 경기장에서, 응원석에서, 그리고 마음속에서 모두 하나였다. 공부뿐만 아니라 뭐든 잘하고 열정적인 약학과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금은 여름방학이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쉬고, 충전하며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내년 해솔림픽이 다시 돌아올 때에도 약학과는 또 다시, 웃고, 뛰고, 응원하며 멋진 여름의 시작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걸.

약학과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방학 잘 보내시고, 다시 학교에서 반가운 얼굴로 마주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우리 다시 함께 외쳐요.

“약학과 파이팅!”



<차약이 친해지기 프로젝트> ✨

오채현 기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차약이 친해지기 프로젝트! '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차약이들이 6명씩 한 조가 되어 2주간 주어진 미션들을 수행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입니다. 최소 다섯 명이 모여 하루 최대 3개의 미션을 수행하며 인증샷을 찍고, 차친프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로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션 중에서는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들도 있었고, '합초 회식하기'라는 미션을 통해 같은 조가 아니더라도 친해질 기회가 있어 더 적극적인 차약이들의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친해진 차약이들과 차친프를 위해 노력해 주신 학생회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 차약이들과의 인터뷰 -

차친프를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미션은 무엇인가요?

23학번 오채현

가장 처음 만나서 보드게임을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잠깐만 하려고 했던 보드게임에 다들 진심이 되어 즐기면서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학번 김가원

한강 피크닉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강 피크닉을 하면서 언니들, 동기들과 dotz리 깔고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며 친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내년 차친프에서 새롭게 생기면 좋을 것 같은 미션이 있나요?

23학번 박예은

별런스 게임을 진행하고 조원들의 답변을 간단하게 적어서 미션을 인증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25학번 김가원

한년 차친프에서는 처음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 점심시간, 혹은 수업 끝난 후에 학교에서 배달 음식 시켜서 해솔마당에서 dotz리 깔고 먹는 미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위권에 들 수 있었던 팀은 무엇인가요?

23학번 오채현

특별이 만들어지고 빠르게 서로의 시간표를 공유하여 만날 수 있는 날짜를 체크한 것이 순위권에 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조원 6명 중 5명이 기숙사를 사용했던 것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4학번 윤은기

미션을 최대한 빠르게 완료할 수 있도록 어떤 날에 어떤 활동들을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었던 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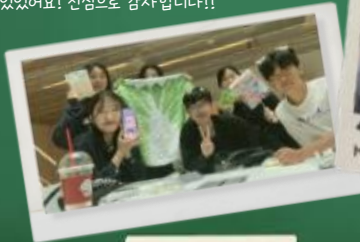
차친프를 함께한 조원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24학번 윤은기

차친프 끝나고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다 같이 친하게 지내자!! 헤림 누나, 선 누나, 찬혁이 형, 승빈이, 정원이 모두 활동하느라 고생 많았고, 특히 베스트 드라이버 승빈이 너무 고마워

25학번 김가원

차친프는 대학 생활의 한 학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습니다! 언니들과 동기들 덕분에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고, 낭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기획국과의 인터뷰 -

차친프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23학번 김민수

차친프를 기획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학년과 성격을 가진 학우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조를 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미션 인증을 받을 때, 일부 미션은 기준이 모호하거나 의도와 다르게 수행된 경우가 있어서, 그 판단을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모든 학우가 공평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고민했던 그 시간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았습니니다.

24학번 홍서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 편성과 미션 선정이었어요. 희망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다양한 학년이 섞일 수 있게 편성하는 과정이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차약이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차친프 기억을 드리고 싶어서 미션 선정 및 점수 인정 기준을 정말 열심히 논의했답니다!

반대로 차친프를 진행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23학번 김민수

몇몇 조들이 차친프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뒤풀이를 열고, SNS에 함께한 추억을 공유하면서 우정이 깊어진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또 미션 인증을 받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줄 때, 다들 너무 귀엽고 즐거워하는 표정이라 보면서 절로 미소가 지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함께 운동하기' 미션을 춤 연습 영상으로 대체해 보낸 조가 있었는데, 그 창의력과 팀워크에 감탄하며 정말 인상 깊게 남았어요.

24학번 홍서연

각 조에서 조원들과 즐겁게 활동한 사진을 올려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프로그램이 단순한 미션 수행을 넘어 진짜 '친해지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학우들이 "차친프 덕분에 그래도 조원들과 많이 친해졌다"라고 말해줬을 때 진행자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어요!



차약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차친프에 참여한 사람도, 기획한 사람도 모두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았던 차약이들도 내년에는 신청한다면 더욱 풍성한 차친프 행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책으로 연결된 마음, 책락의 첫 장

김민지 기자

25학년도 1학기, 차약에 책 동아리, '책락'이 새롭게 개설되었다.

이는 차약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책 동아리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책락은 '책'과 '약학대학'을 연결하는 이름으로, 책을 매개로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바람에서 시작된 동아리이다. 현재는 총 15명의 학우가 함께하고 있으며, 1학기 동안 총 3번의 정규 활동과, 번개 모임, 방학 활동, 그리고 전체 회식을 진행하며,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책락을 개설한 23학번 이채연 학우는, 1학년 시절부터 연합 독서토론 동아리와 책방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해왔다. 그는 "독서토론이 단순히 책의 즐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각자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공유하는 깊은 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1학년 여름방학, 동기와 함께 작은 독서모임을 시작하며 23학번 동기들과의 정기적인 독서토론이 1년 반 동안 진행되었고,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쌓을 수 있었다. 이에 더 많은 학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그 마음을 담아 3학년이 되는 시점에 정식 동아리 '책락'을 개설하게 되었다."

책락은 지난 학기, 총 3번의 정규 활동을 진행하였다. 동아리원 각자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직접 추천하고, 투표를 통해 선정된 책을 함께 읽은 뒤 책을 추천한 한 명이 생각해 온 발제에 대해 서로의 감상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활동이 끝난 후 학기 말에 진행된 회식 자리에서는 한 학기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책락의 첫 정규 활동,
서로의 책장을 열어본 시간.



책락의 번개 모임 중 하나였던 한강 피크닉.
따뜻한 봄날, 책보다 먼저 웃음이 피어났다.

정규 활동 외에도 자발적인 번개 (impromptu) 활동이 학기 중과 방학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었다. 번개 활동은 말 그대로 같이 놀 동아리원을 구해 자유롭게 만나는 형식의 모임으로, 동아리원 중 한 명이 카톡 방에 주최 의사를 밝히고 참여자를 모집하며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1학기에는 뮤지컬 나들이, 병태 휴강 기념 한강 피크닉이, 종강 후에는 서국도 (서울국제도서전) '뿌시기' 번개 활동이 열렸다.



7월 22일에는 방학 활동으로 원하는 동아리원들이 모여 독서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활동에는 총 6명의 동아리원이 참여하였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정규 활동과 달리 각자 하나 이상의 발제를 생각해 와서, 이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참여한 모든 동아리원이 발제에 참여하였고 학교 밖의 새로운 장소에서 진행된 만큼, 더욱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책략을 통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책을 읽고 평소에 하지 못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층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꼭 함께하고 싶어요”

-23학번 권채연 학우

“처음엔 자신에게 책을 읽을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시작했던 것인데, 책략 활동을 하면 할수록 독서토론 자체를 좋아하게 되고,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 얘기하지 않던 주제를 동기, 후배들과 얘기하며,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도 엿볼 수 있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략에 가입한 게 제 3-1학기 가장 잘한 일이라고 느낄 정도로요.”

-23학번 최유리 학우

“책략을 하기 전부터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것에 무척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해보니 기대보다 더욱 재밌게 활동을 즐긴 것 같아요. 이전에 읽었던 책도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었고 그동안 읽지 않던 다양한 분야도 접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단순히 책에 대한 얘기들 뿐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면서 동기들과 동아리 선배들 모두와 만날 때마다 성큼 친해지는 기분도 즐거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는 드디어 책을 미루지 않고 읽게 되었던 것도 개인적으로 맘에 듭니다. 다음 학기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책략이 활발하게 이어졌으면 합니다.”

-24학번 문다윤 학우

“이번에 책략 활동을 하면서 각자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책의 발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같은 글을 읽어도 사람마다 다른 생각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고,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활동들이 하나하나 다 소중한거예요. 책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고민을 나누면서 서로 돈독해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24학번 설아린 학우

이채연 학우는 “책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평소에는 꺼내기 어려운 고민이나 감정을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고,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공감이나 위로가 되기도 한다”라며, 단순한 독서토론 이상의 깊이를 책략에서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그는 “책을 매개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름을 이해하며, 그 안에서 작게나마 답이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동아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학우들과 책을 통해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가치관을 알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책략은 다가오는 2학기에도 정규 활동과 번개 모임, 방학 중 소규모 독서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신입 부원 모집도 진행될 계획이다. 책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싶은 차약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책을 통해 연결되고 가까워질 수 있었던 책략의 첫걸음은 이제 다음 장을 준비 중이다. 책을 통해 더 깊이 연결될 책략의 다음 장이 기대된다.



햇살 가득한 오후, 서로의 이야기에 더 가까워진 책략의 방학 활동.



책략 번개 모임의 흔적, 쌓여간 책들.

6학년의 생생한 병원 실습 후기

배예진기자

지난해 11월, 화이트코트 세레모니를 마친 예비약사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무실습에 나섰습니다. 대학병원 실습을 시작으로 지역약국, 병원, 제약회사, 연구실 등 다양한 실습지에서 5-10주간 실습을 진행하며 약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중앙보훈병원에서 15주간의 병원 심화실습을 진행 중인 차의과학대학교 권정혁 예비약사의 생생한 실습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의과학대학교 20학번 권정혁입니다.

병원 심화실습을 선택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필수실습 10주를 수료한 후 15주간 심화실무 실습하고 있습니다.

2. 실습지에서의 일과를 소개해주세요.

중앙보훈병원의 심화실습은 15주 동안 고정된 스케줄로 진행됩니다.

오전 8시 30분 출근 후 12시 30분까지는 조제지원 업무,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는 각 부서에서 심화실습을 진행하며, 이후에는 학생 실습실에서 개인 과제나 발표를 준비합니다.

오전 조제지원은 병실약국, 1층 외래약국, 2층 외래약국을 실습생들 간 로테이션하며 13주간 진행됩니다.

올해는 병실약국 2주, 2층 외래약국 1주, 1층 외래약국 10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팀의료지원과 소속 NST(Nutrition Support Team)에서 심화실습을 진행 중이며, 중환자 관련 임상지침, 영양공급 관련 가이드라인(ASPEN, ESPEN) 정리, 실제 환자 케이스 모니터링 및 영양 계획 작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 병원심화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약물치료학을 공부하면서 졸업 후 병원약사를 고려하던 중, 병원 심화실습을 다녀온 선배들로부터 실습 시스템과 부서별 특성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항암, NST, 중환자 등 임상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 특성상 실습 사이트가 서울과 경기권을 걸쳐 넓게 분포되어 있어 포천에 있는 학교와 판교 접근성,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병원심화를 선택했습니다.

4. 병원 심화 실습은 일반 실무 실습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중앙보훈병원의 필수실습과 심화실습은 실습 기간, 스케줄, 업무 내용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필수실습은 총 10주간 진행되며, 3~4명이 한 조를 이루어 1~2주 간격으로 부서를 로테이션하며 실습합니다. 반면, 심화실습은 15주간 진행되며, 1~2명이 한 부서에 배치되어 보다 집중적으로 실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앙보훈병원의 필수실습은 의약분업 예외 기관이라는 특성이 잘 드러나는 외래 중심의 구성으로, 항암, NST 등의 전문 부서도 일부 경험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조제, 감사, 투약 등 약사의 기본적인 업무 위주로 짜여 있어 필수 실습의 성격에 잘 부합하는 커리큘럼입니다.

심화실습은 필수실습에서 간단한 이론 교육만 받았던 전문 부서에서 15주간, 보다 깊이 있는 교육이 이뤄집니다. 올해의 심화실습 부서는 병실 약국, 임상지원과, 특수조제과(항암), NST(Nutrition Support Team) 총 4개이며, 실습생의 부서 배정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실 약국을 제외한 각 부서의 실습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특수조제과에서는 항암 질환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항암 레지멘(regimen) 감사를 수행하며, 심화실습에서는 항암제 무균 조제를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임상지원과에서는 흡입기나 대장내시경 약물 등 복약지도가 필요한 약물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환자와 직접 대면하여 복약지도를 수행합니다.

이 외에도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 식별, 부작용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실무를 경험합니다. NST 부서에서는 중환자 관련 임상 진료 지침과 ESPEN, ASPEN 등 국제 영양 지침을 학습하고, 실제 환자 케이스에 기반한 모니터링 차트 작성 및 영양지원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합니다.

5. 중앙보훈병원의 실습 분위기나 지도 약사님의 스타일은 어떤가요?



중앙보훈병원 약사님들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특히, 젊은 약사님들이 많아 실습생 입장에서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같은 학교 선배님도 계셔서 든든했습니다.

NST 부서는 다소 정적인 환경이지만, 지도 약사님께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시고, 임상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해 주셔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KSPEN, 다른 병원 protocole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동일한 환자의 시기에 따른 영양계획 작성, 길랭-바레증후군, 간질환, 신질환, refeeding syndrome 등 케이스별로 임상 영양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6. 현재까지 실습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경험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현재까지 실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NST 회의에서 직접 환자의 영양 계획을 세우고 차트를 작성했던 경험입니다. 영양은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명확한 정답이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로, 동일한 환자 케이스라도 영양수액의 종류나 주입 속도에 대한 의견이 약사님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학교에서 '임상영양학' 수업을 들을 때는 영양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계산 결과가 정확히 맞지 않거나 정답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고 아쉽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 약사님께서 "이것 또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나도 네 계획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보다 자신감을 갖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영양 지원 중인 급성기 중환자의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랩 수치가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도감을 느꼈고, 동시에 약사 역할의 중요성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7. 실습을 통해 느낀 병원약사의 역할이나 중요성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실습을 통해 병원약사의 역할이 단순히 조제나 복약지도에 그치지 않고, 환자 치료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전문직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NST 실습을 통해 병원약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약물 지식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의학용어 및 약어 해석, 의무기록 및 간호기록 분석, 인공호흡기 모드 변화에 따른 임상 경과 이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의 임상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영양요법을 계획하고 중재하는 과정에서 약사의 판단과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병원약사가 보다 능동적으로 의료팀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약사의 역할에 대한 타 직종의 인식도 개선되고, 약사 자신도 더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병원약사의 역할이 NST와 같은 팀의료지원과뿐 아니라, 외래나 병실약국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8. 본인이 실습 전과 비교해서 달라졌다고 느끼는 점이 있다면?

실습 전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약물 용량에 대한 감각입니다. 약물치료학 수업에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약물 용량이, 실제 조제를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DOAC 제제인 apixaban 2.5mg, 5mg이나 항고혈압제인 azilsartan 40mg, telmisartan 40mg·80mg 등 다양한 약물의 용량뿐 아니라, 해당 약물의 원내 코드까지 익힐 수 있었습니다.

병원 특성상 노인 환자 위주로 다루지만, 소아, 청소년 환자 등 다양한 연령대 환자군과 그에 따른 질환에 대한 관심도 생겼습니다. 약물치료학에서 배우지 못한 질환들을 접하고 실제 치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동기부여가 생겼습니다.

9. 실습지로 중앙보훈병원을 추천하시나요?

필수실습에서는 SOAP 작성 외에도 복약안내문 작성, 질환 발표, 저널 리뷰 등 실제 병원 약사님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를 과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의 난도는 비교적 높지 않으며, 매일 2시간 30분씩 과제 시간이 별도로 주어져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앙보훈병원은 외래 진료가 매우 활발한 병원으로, 1층 외래에만 ATC(자동조제기) 15대가 설치되어 있어 대형 문전약국이 병원 안에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면증이 치료된다’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1층 외래 조제는 매우 바쁘고 체력을 요하는 편입니다.

심화실습뿐만 아니라 필수실습에서도 2주간 1층 외래 조제 경험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다양한 약물을 직접 다루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제나 감사 등 약사의 기본 업무를 경험하고 싶거나, 문전약국 이상의 조제 경험을 해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중앙보훈병원 실습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화실습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1층 외래 조제가 고정적으로 배정되며, 계수조제를 많이 경험할 수 있어 조제 실무 능력을 키우고 싶은 학생에게 유익합니다. 동시에 병원약사로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접하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에게도 추천할 만한 실습입니다.

10. 마지막으로, 병원 심화 실습을 준비 중인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조언이 있다면?

실습 선택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원실습은 실습기관별로 실습 내용뿐만 아니라 병원 분위기 차이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실습사이트 선택 시 선배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기관별 특성과 목표에 맞는 사이트를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속 약학 교육의 새 도전

올해부터 약사 국가시험에 CBT(Computer Based Test, 컴퓨터 기반 시험)가 전면 도입된다. 이는 대한민국 약학 교육과 평가 방식의 큰 변화를 의미하며, 수험생과 교수진 모두에게 새로운 시험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종이 시험지와 OMR 카드에 의존하던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 시험이라는 새로운 장이 열린 셈이다.

배경과 취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은 CBT 도입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국시원은 "CBT 도입을 통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채점 및 보안 강화를 이루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편의성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시험 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을 지향하는 것이다.

사실 CBT는 전 세계적으로 보건 의료 분야 국가시험에서 이미 보편화된 추세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에서도 단계적으로 도입된 바 있으며, 이번 약사 시험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에 맞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가 주류를 이루는 현재 대학생들에게 CBT는 한층 더 효율적이고 친숙한 시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험 방식의 변화

기존의 종이 시험(PBT)에서는 수험생이 문제지를 받아 OMR 카드에 답을 마킹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CBT가 도입되면서 수험생은 지정된 CBT 시험장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마우스와 키보드로 답안을 선택·입력하게 된다. 시험은 개별 단말기에서 진행되므로 문제지 분실이나 답안지 채점 오류 같은 우려가 크게 줄어든다.

또한 CBT는 시험 직후 채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합격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시험 운영 측면에서도 결과 처리와 분석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문제 출제 역시 문제은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설계된다. 이를 통해 특정 범위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잡힌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험생의 기대와 우려

수험생들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OMR 카드 마킹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시험 후 빠른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라며 CBT의 장점을 높게 평가한다. 실제로 수험생들에게 채점 오류는 큰 불안 요소였는데, 컴퓨터 기반 채점은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일부 학생은 "컴퓨터 시험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 긴장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다른 학생은 "장비 오류나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 시험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험장마다 시설이나 장비 상태에 차이가 있다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난 9월 문항 적용을 위한 모의 시험에 참여했던 한양대학교 약학대학 5학년 류도현 학생은 "CBT의 사용법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드래그 방식으로 출제되면서 답안의 경우의 수가 20가지 이상으로 많아졌다"라며 "새로운 문항이 도입되는 CBT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정확히 공부해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약학 교육의 변화 전망

이번 CBT 도입은 단순히 시험 방식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문제은행 구축과 활용은 장기적으로 약학 교육 전반의 질적 변화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문제 유형이 제공되면서 학생들은 단순 암기식 학습에서 벗어나,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는 약사라는 전문 직종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실무 적용 능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CBT 시행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향후 출제 경향 분석, 교육과정 개선, 국가적 인력 수급 정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약학계는 이를 통해 미래의 약사 양성 정책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맺음말

이번 약사 국가시험의 CBT 도입은 약학 교육계에 있어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다. 시행 초기에는 수험생과 교수진, 국시원 모두가 적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CBT는 단순히 시험 방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약사로서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보다 현대적인 평가 체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약학 교육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현 기자

2025년도 국시 후기

19학번

이기영기자

약사 국가시험(이하 국시)은 약학과 학생들에게 가장 큰 산 중 하나이다. 실습이 끝난 후 본격적인 국시 준비에 돌입하는 만큼, 많은 학생이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하곤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졸업한 19학번 장세용 선배님과 그 친구들의 생생한 국시 준비 경험담을 들어보았다.

1 국시 공부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9월 초부터 시작했지만, 10월부터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총 20주 정도 공부했고, 1달 정도는 약치, 유기, 생약만 하고 공부 방향성을 잡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2 하루 평균 공부 시간과 루틴

제가 새벽형이다 보니 오후 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밥 시간 제외하면 하루 10시간씩은 하려고 했습니다. 일요일은 쉬는 날도 있고 공부한 날도 있던 것 같습니다.



3 과락 위험이 있었던 과목, 특별히 주의해야 할 과목이 있나요?

법학을 가장 주의해야 할 것 같네요. 크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지만 유일하게 과락이 있다 보니 여러 번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외에는 과락을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전체 60% 맞추는 당락만 조심하면 됩니다.

4 국시에서 특히 중요한 과목이 따로 있을까요?

전부 다 중요합니다.. 최대한 양이 적은 과목은 다 맞힌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치에서 많이 맞힐수록 나머지 과목이 수월해집니다.

또한 예방, 실무처럼 너무 넓은 범위의 과목을 다 못 외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외운 것만이라도 잘 맞추면 과락은 안됩니다.

5 친구들과 교류 및 공부 방식이 있나요?

저는 스터디는 있지만 의견 공유만 하고 모임을 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하시게 된다면, 너무 다른 사람 공부 스케줄에 의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신만의 속도에 맞춰서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스터디 추천 과목에는 약치와 유기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기는 특히 메커니즘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 범위를 나누어 문제를 만들어 푸는 형식을 추천 드립니다.

6 시험 직전, 무엇을 하셨나요?



직전 1~2주전부터 시험장에서 볼 요약본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개념을 넣는 것보다는 기존 외운 것을 확실히 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7 시험장에서의 꿀팁이 있을까요?

쉬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점심도 밖에서 먹고 치우고 오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네요. 검토할 시간은 있기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8 후배들에게 한마디



저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지만 결국에는 합격한 것처럼, 후배님들도 다른 사람보다 늦는 것과 쉬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신의 속도에 잘 맞춰서 하시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방법에는 정답이 없지만 국시원에 있는 기출 문제를 보시고 문제 유형에 맞는 공부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병원약사가 된 졸업생 19학번 김소정 선배와 솔직담백 카톡 인터뷰

손정호 기자

김소정 선배님

별말씀을요! 후배 도움이 되면 좋죠 ㅎㅎ

선배님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졸업하시고 병원약사로 일하신 지 몇 개월 되셨는데, 어떠세요?

생각보다 업무가 재밌고, 같이 다니는 입사 동기들도 좋아서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병원약사를 목표로 하셨던 건가요?

원래 병원 쪽에 큰 관심은 없었는데, 5학년 때 병원 실습을 하면서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병원, 제약회사, 약국, 연구실 등 여러 분야를 직접 경험해보면서 진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취업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어떤 과정이었는지 궁금해요

국가고시 끝나고 우선 폭 쉬고,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약회사·병원 모두 지원했는데, 병원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바로 입사하게 됐죠. 주변에선 국시 보기 전에 이미 면접 보고, 시험 끝나자마자 입사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동기들 중에 조금 천천히 준비한 편이었어요.

바로 입사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시는군요! 실제 병원 업무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많이 다른가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학교에서 배운 게 확실히 도움이 돼요. 특히 약물치료학 국가고시 공부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기본 베이스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약치...어렵다고 들었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Enter a message



#

병원약사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오래전에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기존에 쓰시던 피부약의 효능이나 두 약의 차이점 등 여러 가지를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반복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고, 오래 기억에 남아요.

정말 보람찬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들려주세요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적응 중이긴 하지만, 환자분들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시야를 넓히고 싶어요. 앞으로는 전문약사 등의 제도를 이용해서 전문성을 더 쌓아가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본받겠습니다. 혹시 병원약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병원약사는 단순히 약을 조제하는 일을 넘어서, 다양한 임상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 치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약물치료학 공부 열심히하시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조금씩이라도 노력하세요. 국가고시 때 열심히하시면 됩니다. >> 모두 응원할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약대생들이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들이 있을까요?

꼭! 학생일 때 다양한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병원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다가도, 갑자기 관심이 생기고 의외로 잘 맞을 수도 있거든요.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본인만의 능력을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

바쁘신 중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Enter a message



'약대협'과 'KNAPS'

그리고 KNAPS 교환학생관리국(SEP)의 활동기지

정희찬 기자

예비약사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약대생이라면, 학교 안에서의 수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대외활동이다. 그 중에서도 전국 단위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두 학생 단체,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이하 약대협)"와 "한국약학대학생연합(KNAPS)"는 약대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의 중앙운영위원장이자 국제국원, 그리고 KNAPS의 교환학생관리국(SEP) 부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두 단체의 차이점과 함께, KNAPS의 핵심 부서 중 하나인 "교환학생관리국(SEP)"의 활동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전국 37개 약학대학을 대표하는 공식 단체, "약대협"

1987년 설립된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약대협)"는 전국 37개 약학대학과 11,000여 명의 약대생들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약학대학생 대표 단체이다. 약대협은 전국 37개 약학대학 학생회장들이 활동하는 '중앙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학생회비를 납부한 모든 약대생은 자동으로 회원이 되는 구조다. 약대협은 이를 그대로 전국 단위의 대표성을 갖고 활동하며, 전국 약대생들의 권익 보호와 직능 개발을 위한 굵직한 행사를 매해 주관한다. 대표적인 행사로는 전국 약대생들이 모이는 축제인 '전국약대생축제(전약제)', 실무/봉사 체험 활동인 '약료봉사활동' 등 다양한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약대협은 지부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차의과학대학교는 강원대, 경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와 함께 '동부지부'에 속해 있다. 지부 단위로는 동부지부 체육대회, 일일호프, 학술 세미나 등이 열리며, 타 학교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약대협은 중앙운영위원회를 비롯해 각 지부장들이 속한 '중앙상임위원회', 그리고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집행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상임위원회는 각 학교의 학생회장들로 구성되지만 집행위원회는 전국 모든 약대생이 자유롭게 지원해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이다. 집행위원회는 기획국, 국제국, 정책국 등 총 10개의 국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별뿔캠핑', '명사특강', '정책 아이디어톤' 등 각종 행사 및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 학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도한다. 무엇보다도, 전국 37개 약학대학의 학생회장들이 협회의 운영 방향을 함께 결정한다는 점에서 약대협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약대생 대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네트워크의 중심, "KNAPS"

한편 "한국약학대학생연합(KNAPS)"는 2007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약 4,900명의 약대생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약대협과 달리, KNAPS는 가입비를 납부한 후 정회원이 되는 구조이다.

KNAPS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 교류 중심의 활동이라는 점이다. KNAPS는 "국제약학대학생연합(IPSF)"의 아시아태평양지부(APRO)에 속해 있으며, IPSF의 정회원(full member) 자격으로 IPSF World Congress, Asia Pacific Pharmaceutical Symposium(APPS) 등 국제 약학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024년에는 한국 인천 송도에서 IPSF 세계총회를 직접 유치하는 등 여러 국제 교류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국제 무대에서 활약해보고 싶은 약대생이라면 KNAPS는 분명 매력적인 플랫폼이다.

또한, KNAPS에는 국제 교류 핵심 프로그램인 SEP(Student Exchange Program)이 존재한다. KNAPS의 정회원이라면 SEP의 Outgoing Program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호주 등의 약국이나 병원에서 실제 실습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약업 환경과 문화, 약사의 역할 등을 몸소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직접 활동하며 느낀 KNAPS SEP의 장점

필자는 현재 KNAPS 내 "교환학생관리국(SEP)"의 부국장으로 활동 중이다. 교환학생관리국은 KNAPS의 국제 교류 핵심 프로그램인 SEP(Student Exchange Program)을 담당·운영하는 부서로, 해외 약대생들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앞서 언급한 Outgoing Program(한국 약대생이 해외 실습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참가자 선발 및 운영도 교환학생관리국의 주요 업무 중 하나지만,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Visiting Program'이다.

Visiting Program은 매년 여름 약 2주간, 외국 약대생들이 한국을 방문해 다양한 제약 기관과 문화 현장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다. 교환학생관리국은 이들을 서울대 병원, 식약처, GC녹십자, 한독공장 등 한국의 주요 약학·제약 기관으로 안내하고, 통역 및 설명을 맡아 한국의 제약산업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경복궁, 남산타워, 인사동 등 대표적인 문화 명소를 함께 둘러보며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 나라의 약대생들과 깊이 교류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약대 생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기관을 직접 방문해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SEP 활동은 단순한 약학 지식 전달을 넘어, 국제적인 시야, 소통 능력, 그리고 타 문화를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 약학을 더욱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영어 회화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글로벌 약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교환학생관리국 활동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두 단체, 공통점과 차이점은?

약대협과 KNAPS는 모두 약대생을 위한 단체이지만, 그 운영 방식과 활동 성격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small>KOREAN PHARMACY STUDENTS' ASSOCIATION</small>	 KNAPS <small>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small>
설립년도	1987년	2007년
회원 방식	자동 가입 (학생회비 납부 시)	자율 가입 (가입비 납부)
회원 수	약 11,000명	약 4,900명
주요 행사	전약제, 약료봉사활동, 정책토론회 등	World Congress, APPS, SEP 등
성격	전국 대표 단체, 국내 중심	국제 교류 중심, IPSF 소속

약대협 집행위원회와 KNAPS 모두 신입 국원 혹은 정회원 모집 시기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약대협은 매년 초, KNAPS는 상·하반기 (2~3월, 하반기 7~9월)에 국원/정회원을 선발한다.

두 단체를 모두 경험해본 나로서 확신할 수 있는 점은, 약대생의 성장은 교실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대협을 통해 전국 약대생들과 연결되고, KNAPS를 통해 전 세계 약대생들과 교류하며 약학이라는 분야의 넓이와 깊이를 체감할 수 있었다.

타 학교 친구들과의 교류, 국제 행사 참여, 실제 기관 견학까지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험들이다. 약대생으로서의 시야를 넓히고 싶다면, 두 단체의 문을 두드려보기를 진심으로 추천한다.



APPS 2025, Malaysia 참가 후기

오승범 기자

APPS(Asia-Pacific Pharmaceutical Symposium) 는 IPSF(국제약학대학생연맹) APRO(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의 가장 큰 연례행사입니다. 올해는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IPSF APRO 소속 단체 회원은 OD(Official Delegate) 혹은 RD(Regular Delegate)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OD는 행사 동안 APRO의 인사와 정책에 관해 토의하는 RA(Regional Assembly)에 참석하고 RD는 APPS 전반적인 행사에 참석합니다. 한국 약대생의 경우 KNAPS(한국약학대학생연합)를 통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크게 LIT(Leaders in Training)-APPS-PST(Post Symposium Tour)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자들은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현지 기관 견학 및 각종 대회 참여 등 학술 활동과 캠페인, Gala Night 등의 여러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행사 타임라인은 하단 사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1. APPS 2025 포스터)

(사진2. APPS 2025 타임테이블)

저의 경우, 특별한 목표보다는 '나라별로 한 명씩 친한 친구를 사귀어 오자!'는 마음으로 한국 대표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참가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행사에 앞서 KNAPS 국제협력국에서 대표단 교육 캠프를 진행해 한국 대표단과 미리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국 전에는 외국인 친구들을 위한 한국 기념품, International Night용 한복, Gala Night용 정장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APPS 주최국에 따라 추가적인 예방 접종이나 해당 국가의 문화적 특성(예: 긴 소매, 긴 바지 착용 등)을 고려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진3. 한국 대표단 단체사진)

지난해 약 5주간 USC ISSP를 참가해 보며 USC에서는 학술적인 부분을 얻고 교환학생 체험 느낌을 받았더라면, APPS에서는 한국을 대표하여 외국 약대생들과 문화적인 부분도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APPS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International Night'과 'Gala Night'가 대표적인 소셜 행사입니다.

International Night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각자 나라를 대표하는 의상을 입고 문화를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무대에 올라가 전통 노래, 안무 등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한국 부스에서는 한글로 사진엽서 써주기, 딱지치기, 한국 과자 등을 준비하였고, 무대에서는 각종 K-POP 메들리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Gala Night에서는 호텔 연회장에서 근사하게 드레스나 정장을 갖춰 입고, 참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지막 밤을 함께 즐기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학부 시절 교내 활동만으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행사들과 외국 문화들이 무척 색다르게 다가왔고, 그 모든 순간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사진4. Gala Night 단체사진)

5학년 2학기를 앞둔 지금, "재학 시절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나요?"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주저 없이 'APPS 2025'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은 잠시 접어두고, 낯선 장소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같은 길을 걷게 될 이들과 함께하는 일주일의 말로 다 담기 어려울 만큼 특별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 중 하나는 "오직 학생일 때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마음껏 도전해 보자"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순간들이기에, 무엇이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남의 시선은 잠시 내려놓고 꼭 도전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사진5. 행사 사진 모음)



APPS 행사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APPS 참가지 북렛

- 38번의 일기 -



권서우 기자

제목: 특별한 조합, 38번!

2학년 두 명과 3학년 두 명, 총 네 명으로 이루어진 신기한 조합의 38번은 2024년에 세 명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완성됐다. 비슷한 학년들로 구성된 만큼 서로 친밀하고, 약속을 따로 잡아서 서울에서도 자주 만난다. 이번 기사에서는 38번 구성원들의 개성 넘치는 매력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친해졌고, 어떤 주제로 웃고 떠드는지 소개해 보려 한다.

「38번 구성원 소개」



한수민 (00년생, 2학년)

38번의 만이이자 청일집. 다정하고 겸손한 성격으로 동생들을 편하게 해주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끈다. 피곤할 때 나오는 '7기체 리액션'은 동생들에게 바로 들켜서 모두의 웃음 포인트가 된다. 헬스를 열심히 하는 멋진 체격의 운동러!

김은성 (05년생, 2학년)

고양이상 쿨톤 미녀지만 성격은 따뜻함 그 자체. 생각이 깊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38번의 귀여운 막내다. 언니 오빠들의 엉뚱한 말에 진심으로 어이없어하며 웃는 모습이 매력 포인트. 클라이밍과 턱걸이를 척척 해내는 전완근 미녀이기도 하다.



오채현 (03년생, 3학년)

똑 부러지고 성실한 38번의 필수 인물. 작년에 편입생과 신입생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며 지금의 38번을 완성시킨 연결고리 같은 존재다. 학과 생활 정보도 아낌없이 알려주는 진정한 선배미 뽀뽀! 항상 좋은 향이 나는 향수 전문가이기도 하다.

권서우 (02년생, 3학년)

뽀모임에서 엉뚱한 대화 소재를 던져 오디오를 책임지는 분위기 메이커(?)이다. 어떤 자리든 금세 적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팀을 밝게 만든다. 38번에 대한 애정이 깊고, 수영을 좋아하는 액티브한 성격의 소유자다.



「38번모 이모저모」

잠실 첫 모임, 어색함을 녹이다 ☺

2024년 9월 16일

38번의 첫 공식 모임은 잠실에서 시작됐다.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채현이가 추천한 하이볼 전문점에서 각자 다른 하이볼을 맛보며 분위기를 풀었다. 서로의 학교 생활과 꿀팁을 공유하고, 앰비티아이 같은 TMI도 나누며 서서히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첫 단체 인생네컷! 사진 속 살짝 어색한 미소조차 지금은 소중한 추억이다.





두 번째 모임은 훨씬 더 편해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일식 가정식집에서 든든히 식사를 하고, 달콤한 딸기케이크 맛집으로 이동해 수다를 떨었다. 방학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 요즘 어떤 책이나 영화나 생각할 거리에 빠져 있는지 각자의 근황과 취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보드게임카페에서 '티켓투라이드'와 '블리츠'를 즐겼는데, 채현이와 은성의 빠른 두뇌 회전에 언니 오빠 라인인 언이언 패배하며 웃음바다가 됐다. 심리전도 하고 소리 내어 깔깔 웃기도 하면서 우리만의 케미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제는 서로의 일상과 고민까지도 편하게 나누는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완성됐다.



세 번째 모임에서는 실내 글램핑장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었다. 맛있는 배달 음식 먹기부터 시작해서 설빙으로 디저트까지 챙기고, 거짓말 탐지기를 들고 짓궂은 질문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상형은 뭔지 하, 나중에 어떻게 잘 살아가고 싶은지, 평소엔 잘 안 꺼내는 깊은 이야기들이 오가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글램핑에서의 대화는 스타벅스로 장소를 옮겨 2차전으로 이어졌다. 아주 이상한 밸런스게임부터 씬이나 바람의 기준이 뭐냐 등의 정답이 없는 이야기까지 만담을 이어갔다. 무려 12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떠들며 웃고, 고민하고, 공감했다. 헤어질 때쯤에는 모두가 진이 빠졌지만, 그만큼 더 가까워진 진짜 '38번 라인'이 완성됐다. 다음 모임을 기대하며 헤어지는 우리는 서로 정말 친해진 것 같았다!



「38번의 한마디」



멋있는 수민 오빠

우리는 코드가 잘 맞아서 카페에서만 무려 8시간을 대화할 수도 있어요. 특별한 콘텐츠가 없어도 재밌게 놀 수 있는 게 우리 뽀라인의 장점이에요. 우리 네 명에서 씬의 개념을 가지고 한 세 시간 동안 열변을 토했거든요... 식비가 조금 많이 나오지만 모일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ㅎㅎ 다행인 것은 다들 그리 술을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휴). 26학번 누가 오든지 아주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와주세요! 38번 최고 ^.^

나이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사람끼리 등기라 서로 친해서 어색함 없이 대화하기 좋아요. 방학마다 뽀모를 했지만 이번 뽀모에서 정말 친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순수하게 수다만으로 뽀모에서 6시간 이상을 떠들 수 있다니...! 2학년이 되면서 가장 선배가 되고 인원도 2명일 거라 생각해서 걱정했는데, 두 명이나 더 들어와서 더욱 풍성한 뽀라인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후배님이 들어온다면 열심히 챙겨드리겠습니다! 38번 최고♡



귀여운 채현이



감쪽한 은성이

제가 38번이라는 게 너무 럭키버키라고 생각할 정도로 풀짐 조합이에요! 서우 언니가 던져주는 밸런스게임과 토론 주제에 모두가 인생 최대 고민인 것처럼 고민하는 게 항상 너무 웃겨요ㅋㅋ 내년에는 26학번 분이 꼭 들어오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재밌게 놀아용 38번 뽀에버~★

38번과 함께한다면 행복해요~>< 뽀라인이 있어서 정보도 주고받고 학번 간 유대감도 쌓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이 글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미 졸업하신 38번 선배님들이 다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궁금한 점도 해결해 주시고, 맛있는 밥도 많이 사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수민, 은성, 채현, 서우 모두가 선배님들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ㅎㅎ 앞으로도 더 화목한 38번 가족을 꾸려가겠습니다~



재밌는 서우

2025 차약 앙케이트

이창윤 기자

질문1) 연락을 제일 잘 볼 것 같은 동기는?



25학번 조승빈

알림 뜨기 전에
확인합니다
(44.4%)



24학번 이현

잠 잘 때 빼고
연락 잘 봅니다
(30%)



23학번 오채현

제 연락도 좀
봐주세요
여러분ㅠㅠ
(40%)



22학번 윤재원

소감 요청
카톡마저
1초만에 볼
(40%)



21학번 성상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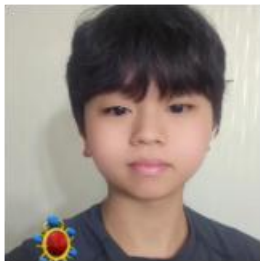
병·의원 및 약국 중개 문의
※ 체인 약국 문의 ※
(4년 뒤부터)
☎ 010-5348-2981 ☎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를 드립니다
(66.7%)

질문2) 정신연령이 가장 낮은 것 같은 동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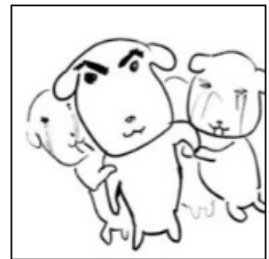
25학번 이진호

어른이 되기엔
너무 어리잖아요!
(33.3%)



24학번 차이람

응애(?)
(30%)



22학번 김민규

순수하게
살다 보니
이런 영광이
있네요
(40%)



21학번 김운재

엄마,
개구리 사주면
안돼?
(50%)

23학번 김민수

...동의할 수
없습니다ㅠㅠ
(60%)

질문3) 플러팅 잘할 것 같은 동기는?



25학번 노태윤

최대 플러팅:
텔레파시 보내기
(55.6%)



24학번 오재연

누울래?
(40%)



23학번 박희찬

플러팅 그게
머쫌...?
(40%)



22학번 구태모

사실이 아닙니다
(30%)



19학번 손정호

...
(50%)

질문4) 고민상담 잘해줄 것 같은 동기는?



25학번 김가원

동기분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고민있으시면
편하게 말해주세요!!
함께 고민 나눠요!
(33.3%)



24학번 강다현

상시대기중♥
(30%)



23학번 안민욱

다 물어보니?
(40%)



22학번 이예나

진로? 학업? 인간관계?
무슨 고민이든 들어드립니다!
비밀보장 200% (*건당 100원)
(30%)



21학번 김미행

뭘든지 물어보살
(33.3%)

차팜인을 후원해주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차팜인 15호 즐겁게 보셨나요? 차팜인은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만드는 소식지입니다. 발간을 이어 가면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카카오뱅크 3333-33-608-4743 (예금주: 손윤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마음, 알뜰히 사용하여 더 좋은 지면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pharmin@naver.com / 010-4171-8846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약학대학 소식지 <CHA PHARM IN>은 차약인들이 직접 차약인들의 소식을 담아, 차약인들과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차약인들과 나누고 싶은 소식이라면, 어떤 것이든 환영합니다. 짧은 수필, 나누고 싶은 정보, 재밌게 읽은 책에 대한 소개, 방학 기간 동안 다녀온 여행의 기록, 소중히 그린 그림, 사진, 만화, 문학 등 형식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팜인은 지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주변의 소식지 편집위원이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고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답례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약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CHA PHARM IN> 편집장 김미행
chapharmin@naver.com / 010-5377-9811

